

구례군-주민, 문척교 철거 놓고 찬반 팽팽

군, 2020년 폭우 범람 하천기본계획 반영 10월 철거 주민들 “50년 추억 서린 ‘효자다리’... 일방 철거 반대”

2년 전 유례없는 폭우로 물에 잠긴 구례군 옛 문척교 철거를 앞두고, 구례군과 다리 존치를 주장하는 주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읍 섬진강에 위치한 옛 문척교(420m·사진)가 오는 10월 초 수해 복구 사업 일환으로 철거된다.

1972년 놓인 옛 문척교는 섬진강 사이로 나눠진 구례읍과 문척·간전면을 이었다.

이 다리는 50년간 백운산 인근 문척·간전면 주민이 구례읍 내로 오갈 수 있는 역할뿐 아니라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지역 상징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지난 2020년 8월 유례없는 폭

우로 불어난 섬진강물에 잠겨 난간 61m가 파손됐다. 당시 인근 마을 또한 범람한 강물로 수해 피해를 봤다.

구례군은 하천 설계 기준상 계획 홍수위보다 교량 높이가 낮아 다리 철거를 결정했다.

주민들은 주요 통행로인 다리를 의견 수렴 없이 철거하는 것은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다리 철거에 따른 침수 개선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척교 철거 반대 범군민 행동연대는 “지난 2020년 수해 원인은 문척교가 아니라 댐 대량 방류로 인한 참사였다. 하천 정비는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철



거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구례군은 철거 뒤 700-800m 떨어진 곳에 보도교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해당 장소는 노인들이 타는 전동 휠체어 진입이 어려운 데다 마을 생활권과도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 양정마을 주민 남모(57·여)씨는 “문척교

는 주민의 추억이 오롯이 담긴 곳이다. 또 벚꽃길과 섬진강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다.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다리를 보존·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옛 문척교의 기둥 폭과 교량·제방 높이가 낮아 범람 우려가 큰 만큼 철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척교의 상판 높이는 하천기본계획상 수위 상승 시 여유고가 7.93m 부족하다. 교량 기둥 간격도 60m 좁게 설계됐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 다리는 50년 전 지어져 현 ‘100년 빈도의 홍수 국가 하천 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밑 부분의 철근이 드러나 노후화가 심하다. 기둥 간격도 좁아 부유물이 끼어 물 소통을 정체시킨다.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학령기 아동 23명 대상
곡성군, 축구교실 운영

곡성군이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령기 아동 23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곡성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축구교실은 (사)곡성스포츠클럽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축구 전문 지도자를 투입함으로써 참여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군은 대상 아동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구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은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을 습득하는 기초 과정을 거친 후 테크닉 과정을 통해 드리블 감각과 패스 등을 배우게 된다. 기본기를 익힌 후 드리블, 패스, 슈팅까지 총체적으로 습득하는 종합 훈련으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 드라마촬영장 ‘언약의 집’ 언덕 해바라기꽃 활짝



순천의 관광명소인 순천드라마촬영장 언덕에 해바라기 꽃밭이 조성됐다. 드라마촬영장 ‘언약의 집’ 주변 2200㎡에 해바라기 꽃이 활짝 피어 여름철 관광객을 반기고 있다. 해바라기가 군락을 이룬 언약의 집은 드라마촬영장을 찾은 연인들이 영원하기를 약속하는 특별한 장소로 알려졌다. <순천시 제공>

‘광양시민의 날 행사’ 4년만에 옥외행사 치른다

10월 7일 개최

올해 ‘광양시민의 날 행사’가 4년 만에 옥외행사로 치러진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로 28회를 맞는 광양시민의 날 행사는 10월8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 7일 열린다.

행사는 옥내·옥외 행사를 매년 번갈아 실시하고 있으나 2020년 옥외 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옥외행사로 치르게 됐다

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민선 8기의 지속 발전을 다짐하고 시민의 애환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추진한다.

시는 최근 광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의 날 행사 세부 추진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확정했다.

본 행사에는 시민의 상 및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시상, 민선 8기 비전 선포, 건강백세 장수체조, 어린이·청소년 공연, 민속놀이, 명랑운동회, 노래자

랑, 체육경기 등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의 날 전후로 열리는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10월 7-9일)와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10월8일) 등 문화예술 행사를 연계해 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옥외행사인 만큼 각계각층, 지역예술인, 청소년도 참여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

봄꽃 개화시기 맞춰...1개월 연장
150만명 관광객 확대 효과 기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개최된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을 2023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보다 개막은 21일 앞당기고, 폐막은 9일 연장하는 등 총 1개월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 기간 변경을 통해 150만여명 내외의 관광객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최일을 변경한 배경에는 정원 관광이 주로 봄가을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봄을 상징하는 벚꽃과 튜립의 개화시기가 4월 초

까지 앞당겨지는 등 박람회 기간 조정 필요성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다.

특히 봄철 순천 곳곳에 피는 벚꽃은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핵심 콘텐츠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람회 기간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에 정원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던 2013박람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원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 대대적으로 핵심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13박람회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을 만들었다면, 2023박람회는 대한민국 제1호 정원도시 순천을 탄생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직위는 물론 순천시의 역량을 2023박람회 성공 개최에 모두 쏟겠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농특산물 쇼핑몰 ‘보성몰’ 목표액 조기 달성 예상

목표액 30억원으로 상향 조정

보성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보성몰’이 가파른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9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보성몰은 올해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7월 말 기준 18억원의 매출고를 보이며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성군은 2022년 보성몰 목표액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성군은 2017년 지역 농가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몰을 오픈했다. 오픈 첫 해인 2017년 4800만 원을 시작으로 2018년 2억2800만원, 2019년 4억 1900만원, 2020년 4억6700만원, 2021년 9억 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보성군은 보성몰에 입점한 농민들에게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카드 등 결제수수료 전액 면제, 택배비 50% 지원, 보성몰 택배포장재 제작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는 추석맞이 할인전도 시작한다. 보성몰 전품목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